

2023 04
제219호

대덕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2023
대덕물빛축제
FESTIVAL 2023

대청호고래품다
The Daecheong Lake imagines whales.

2023. 4. 7. ~ 5. 7. _ 대청공원

빛의 바다, 미디어 돔, 물빛해피로드, 미디어아트갤러리

04.08.SAT
15:00~

19:00~

로맨틱펀치, HYNN(박혜원), 루시, 전건호
개막식(불꽃쇼 드론쇼), **다이나믹듀오**

04.09.SUN
15:00~

10cm, 펀치, 실리카겔, 경서예지, 라쿠나

05.07.SUN
17:00~

폐막식, 효 콘서트

매주 금, 토, 일

공연 및 푸드트럭 운영

주최·주관



후원



협찬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02 좋은 글, 좋은 시

03 구정 소식

04 [인터뷰] 도미자 덕암동 여성자율방범대장

05 대덕구 맛집

07 책책책! 책을 소개합니다

08 열린 의정

09 의정논단

10 대덕톡톡

12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첫차

이계창(시인, 대덕문화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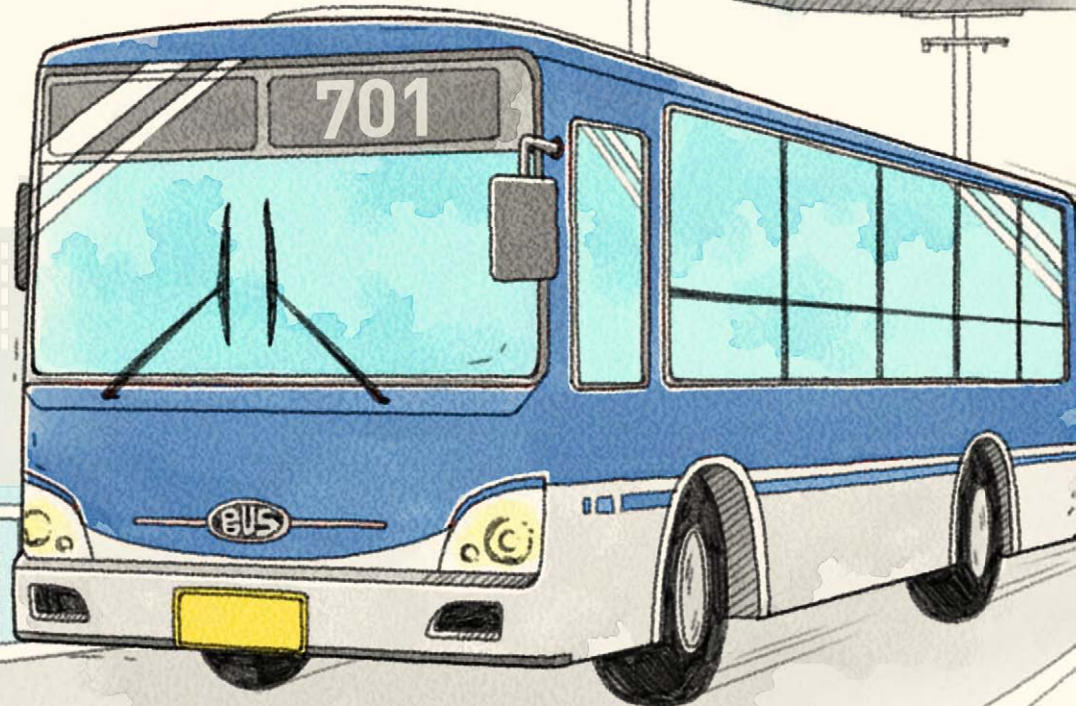
울다 웃다가 쓰러진 밤
가로등처럼 졸다가 수돗물로 벌컥벌컥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선 길

잠이 덜 깬 첫차
꼬르륵꼬르륵 요동을 치고
차창에 배고픈 아침이 걸렸다

등 굽은 노동자
줄지어 올라오는 도시락가방으로
버스는 배를 채운다

차도 사람도 흔들흔들
졸다가도 내릴 곳은 정확히 안다

701번 버스는
고단한 사람들의 휴게실이다



* 701번은 신탄진 방향 시내버스이다. 첫차에 고된 일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 : 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3년 4월 5일(제219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모바일로 혈압·혈당 관리 해보세요”

스마트폰 앱 활용 만성질환 관리
‘내 손안의 건강수첩’ 운영

대전 대덕구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내 손안의 건강수첩’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덕구보건소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모바일 만성질환 관리 ‘웰체크’ 앱(APP)을 활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는 만성질환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록한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꾸준한 투약 관리를 위해 복약 알림 설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운동, 영양 등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 및 정기적인 교육정보도 볼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대덕구보건소로 전화(☎608-4468)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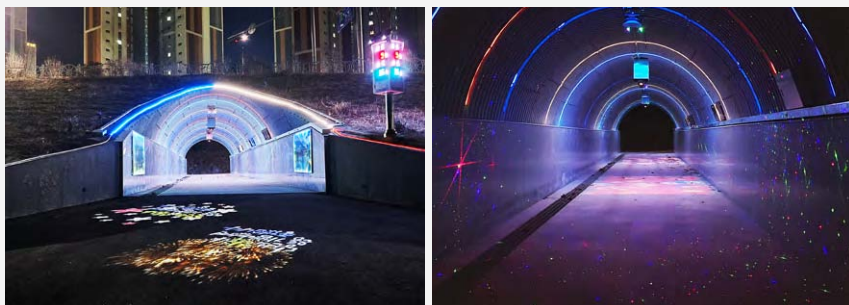
대덕구 신탄진 금강변 보행 터널 경관조명 설치

대덕구가 금강변 산책로 보행 터널에 경관 개선에 나섰다.

구는 셉테드(CPTED)사업의 일환으로 동일스위트리버스카시아파트 옆 공원에 위치한 하부 터널(신탄진동 55번지 일원)의 입구와 내부에 조명을 설치했다.

셉테드 사업이란 주거환경이 낙후되거나 좁은 골목길, 어두운 보행로 등의 환경을 변화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사업이다.

구는 터널 입구에 기상전광판과 고보조명(바닥이나 건축물에 문구나 그림을 비추는 장치)을, 터널 내부에는 은하수 조명, 렌티큘러조명(화면이 바뀌는 디지털액자), 인터랙티브조명(모션감지 동영상) 등을 설치해 조도 개선은 물론 야간 보행 시 시인성을 높였다.



대덕구,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개소

소공인 경쟁력 강화 기대



대전 대덕구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나섰다.

구는 지난달 29일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개소했다.

대덕구 오정동 일대는 300여개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분야의 소공인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번에 조성된 공동기반시설은 공동활용시설, 공동장비공간 2개 동으로 구성됐다. 공동활용시설에는 제품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측정실, 장비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 시제품 전시를 위한 전시공간 등이 마련돼 있고, 공동장비공간에는 레이저가공기, 5축가공기, CNC유압식 절곡기 등 6종의 제조장비가 갖춰져 있다.

구는 집적지 내 소공인들을 대상 전문기술교육,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덕구, 어르신 돌봄 놀이터· 공유공간 조성



대전 대덕구가 어르신 실내놀이터(가칭 노슈) 및 주민돌봄 공유공간을 조성한다. 구는 LH주택공사가 제공한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아파트 상가 지하와 아동 감소에 따라 폐원된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어르신 돌봄 놀이터·지역주민 돌봄 공유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르신 놀이터는 건강관리실, 강의실, 공유 카페, 공유 주방 등을 갖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봉사는 내 삶의 전부”

도미자

덕암동 여성자율방범대장



가끔 스스로 감당하기 벅차다고 느낄 때가 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일에 치여 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만날 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대전 대덕구에는 40여년 넘게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주민이 있다. 도미자(60) 덕암동 여성자율방범대장이다.

사실 필자는 도 대장을 만나기 전 ‘방범대장’이라는 직함에서 ‘강인·민첩’ 등 다소 경직된 단어가 연상됐다. 하지만 그것은 필자만의 크나큰 고정관념이었다.

밝은 미소와 함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라며 인사를 건네는 도 대장의 모습은 푸근한 어머니이자 자상한 언니이자 누나였다. 특히 그녀의 지난 40여년간의 삶의 궤적을 들으면서 진정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요, 하늘이 내린 참된 봉사자임을 실감했다.

40여년 넘게 덕암동 사랑, 이웃사랑에 폭 빠져

“봉사하면 할수록 더하고 싶어… 청년층 봉사 참여 이끌고파”

도미자 대장의 봉사 정신과 인간애는 학창 시절부터 남달랐다.

중학생 시절 단짝이었던 친구가 부모를 여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빨래, 청소 등을 거들었다. 이때 도 대장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남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고 이후 자신의 생애 대부분을 봉사활동으로 채워갔다고 한다.

도 대장에게 덕암동은 지난 1981년 터를 잡은 이후 40여년 넘게 살아온 제 2의 고향이자 봉사와 헌신의 땀방울이 물씬 배어있는 최애(最愛) 지역이다. 덕암동 부녀회 총무에 이어 지난 2003년 12월에는 여성자율방범대 창립 멤버로써 20년이 지난 현재 대장까지 맡는 등 꾸준한 봉사의 손길로 지역사회를 보듬어 왔다. 또, 복지만두레 총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등도 맡고 있어 그야말로 덕암동 ‘마당발’이자 든든한 ‘지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봉사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봉사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제 손이 필요할 때 손만 잡아줘도 그 사람은 저를 지팡이로 삼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 대장은 야간순찰을 통해 탈선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엄마 같은 입장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밤길이 무서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든든한 등불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냈다. 또 저소득층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홀몸 어르신·중증장애인 목욕 봉사, 지역 방문객 친절할 길 안내 등 덕암동에 그의 정성스런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그렇듯 도 대장도 마냥 한가해 봉사에 투신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자녀 둘을 키우며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모시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보탠 것이다.

특히, 도 대장은 성장기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기보다는 봉사활동 현장에 자주 데려가 봉사가 주는 행복을 스스로 깨닫게 해줬다.

선행이라는 소중한 자산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됐다. 공직에 몸 담고 있는 딸은 주말이면 자신이 직접 만든 쿠키 등을 들고 노인·아동 복지시설을 방문해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고 한다. 도미자 대장이 40여년간 쌓아온 봉사 활동력은 수상 경력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2016년 국민안전처 장관상 수상 △2017년 제3회 대덕구민대상 지역발전부문 수상 △2019년 의용소방활동 대통령상 수상 등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용기가 없어서 봉사활동을 망설이는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가장 큰 목표라는 도 대장은 “청년층의 재능기부 활동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눔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봉사란 무엇이야’라는 필자의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다.

“봉사는 좀처럼 끊기 어려운 마약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그에 맞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사골로 푹 끓여낸 설렁탕 맛집 **놀부네설렁탕**

-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1006번길 62(오정동 92-18)
- 설렁탕 9,000원 / 양곰탕 10,000원
도가니탕 17,000원 / 수육 30,000원
- 영업시간 : 08:30~21:00
(브레이크 타임 15:00~17:00) (매주 일요일 휴무)
- 연락처: 042-672-1463



개나리, 벚꽃 등 봄꽃이 만개한 4월이 되니 나른함, 피로감을 유발하는 불청객 춘곤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춘곤증을 극복하고자 여러 보양식을 찾는다면 ‘곰탕’ 한 그릇은 어떨까. 대덕구 오정동 화정초 정문 앞에 자리한 ‘놀부네 설렁탕(대표 정문천)’은 사골, 잡뼈, 머리뼈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조리법과 달리 오로지 사골만으로 육수를 낸다. 그래서 국물이 텁텁하지 않고 맛이 깔끔하면서도 깊고, 속이 편해진다. 젊은 시절 손님 접대를 위해 찾았던 식당에서 도가니탕의 진하고 깊은 맛에 반해 곰탕집을 열고 31년이라는 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

정 대표는 좋은 식재료 사용과 정성이 맛의 비결이라고 소개했다. 양곰탕은 기본 사골 육수에 고명으로 양을 넣는데 정 대표는 반드시 한우 양만 사용한다. 수입육에 비해 한우 양이 쫄깃함과 고소함이 더하기 때문이다. 설렁탕집의 핵심 반찬인 겉절이, 깍두기도 인근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 매일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아 바로바로 만들어 손님상에 내놓는다. 설렁탕·양곰탕의 따뜻한 국물에 양념장, 파 등을 넣어 먹으면 진한 육수의 향과 맛에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 든다는 게 고객들의 공통된 평이다. 이 밖에 수육은 함께 제공되는 겨자·

간장, 파+쌈장, 양념장과 함께 먹으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놀부네설렁탕’은 별도의 직원 없이 정 대표 부부 단둘이 운영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준비해 점심 장사를 마치고 겨우 한숨을 돌리지만 정 대표 부부는 그 흔한 브레이크타임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다음날 손님들에게 제공할 육수를 고아야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 드시러 오시는 손님들이 있기에 힘이 난다. 그분들이 있는 한 가마솥 걸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칼칼한 생태찌개가 떠오르는 날 **오정동 '생태와갈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천북로 222(오정동 345-6)
- 생태탕 14,000원 / 고등어구이 정식 12,000원
갈치구이(조림)정식 22,000원
- 영업시간 10:00~14:00 / 매주 일요일 휴무
- 연락처: 042-634-4594



“숨겨진 맛집 찾기란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같다”

먹는 즐거움을 찾는 이들은 이 문장에 공감하지 않을까. 얼큰함의 대명사이자 사계절 음식인 생태찌개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갈치·고등어 등 생선구이 전문점인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생태와갈치(대표 김종길·문옥순 부부)’도 초행길이라면 한번에 찾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숨겨져 있다. 이 집에 들어서면 모든 테이블이 밀반찬과 함께 준비돼 있다. 방 안쪽 자리도 이미 예약이 완료돼 상차림을 마친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점심 시간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집이란 뜻이다. 푸짐한

생태찌개는 코끝에서 느껴지는 매콤함과 새빨간 비주얼이 입맛을 당긴다. 오동통한 생선 살과 담백하면서 착착 감기는 국물맛은 숟가락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생태와갈치’만의 차별화 전략이자 행복한 식사에 화룡점정을 찍어주는 것은 바로 흰 찰밥이다. 이 집은 모든 메뉴에 즉석에서 찰쌀로 지은 찰밥을 접시에 한가득 담아 준다.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생선 살을 발라서 흰 찰밥 위에 올려 먹으면 더없이 만족스럽다. 그렇게 먹고 배가 불러 식사를 중단하려던 찰나, 사장님께서 가져다주신 누룽지에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누룽지와 함께 남은 밀반찬도 모두 처리하고 나서야

식사를 종료했다. 김종길 대표 부부가 생선·해물 전문 음식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대표가 운영하던 안경렌즈 제조업체가 뜻하지 않게 문을 닫게 되자 재충전을 위해 동해안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던 중 우연히 생태탕을 먹어보고 그야말로 반해 버렸다고 한다. 특히, 당시 대전지역에 생태 전문점이 없었기에 곧바로 음식점 개업에 나서게 됐다고, 김종길 대표 부부는 “절망에서 희망의 삶으로 이끌어준 음식점”이라며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손님들에게 맛과 정성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6000원 백반의 행복 오부자강릉집

-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1006번길 74
- 백반 6,000원 / 낙지뚝배기 8,000원
회덮밥 12,000원 / 회무침(小) 40,000원
- 영업시간 : 10:00 ~ 20:30 (브레이크 타임
15:00~17:00) / 매주 일요일 휴무
※인근지역 배달 가능
- 연락처 042-626-1888(오정동)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에 지갑을 열기가 무섭다. 하지만 끼니를 거를 수 없으니 착한 가격에 맛까지 좋은 식당을 찾아 헤매곤 한다. 이번에는 6,000원이라는 가격으로 매일 바뀌는 국·찌개·반찬 등 정성이 담긴 집밥을 한 상 내어놓는 백반집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다. 대덕구 오정동 화정초 인근 오부자강릉집(대표 박송화)은 사실 '회무침'으로 유명한 맛집이다. 지난 2010년에 이곳에 음식점을 개업했다는 박 대표는 점심 특선 메뉴를 고민하던 중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집밥을 손님들에게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백반을 선택했다고 한다. 탁월한 결정

이었다. 창고형 공장 등 주변이 사무실 밀집 지역이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정성 담긴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고 한다. 필자가 찾아가간 시간이 오전 11시 경으로 비교적 이른 점심시간이었지만 주문 전화와 배달이 실새 없이 이어졌다. 이 집의 백반은 매일 국·찌개는 물론 6~7가지의 반찬이 매일 바뀌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더 놀라운 건 양도 많고 맛도 있다는 것이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싶을 때 생각날 것 같은 제대로 된 백반집이다. 6,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어떻게 가게를 운영

하는지 물어보자 박 대표는 "제 건물이라 월세 들어가지 않고, 남편과 딸이 도우니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가능하다"라며 "3명의 직원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가족들과 먹고살 정도만 벌면 된다. 욕심 안 부린다"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박 대표는 반찬 봉사는 물론 장학금 후원, 독거노인 한 분을 직접 방을 얻어주고 6년간 보살피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꾸준한 선행을 펼치고 있다. 직접 먹어보고도 믿을 수 없는 밥값, 그 넉넉함과 배품 속에서 봄 햇볕이 더욱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한 그릇의 밥에 건강과 행복을 담다 행복담은한그릇

- 대전 대덕구 대전로1020번길 23
- 청국장 7,000원 / 된장찌개 7,000원
황태탕 7,000원 / 황태구이 10,000원
- 영업시간 : 11:00 ~ 14:00 / 매주 일요일 휴무
※저녁 15인~50인 단체 사전 예약제 운영
- 연락처: 042-631-0045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로 '의(衣)·식(食)·주(住)'를 꼽곤 한다. 자거나 쉬 수 있는 공간과 입을 옷, 먹을 음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는 그중에 '식'에 관심이 많다. 힘들고 지친 날, 맛있는 한 끼를 먹는다면 그것으로 그날의 행복이 채워지곤 한다. '행복담은 한그릇'은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인 도원참사랑나눔(이사장 권경미)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이 음식점은 쌀, 콩,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 모든 식재료를 조합원들이 직접 재배 하고 생산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돼지고기와 황태 역시 국내산만을 사용하니 그야말로 100% 국내산 식재료 취급업소라 할 수 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직접 메주를 띄우고 장을 담그신 재래식 기법 그대로가 재연된 이유일까? 이곳의 청국장, 된장찌개는 되직하고, 찐하고, 구수함이 넘쳐난다는 게 방문객들의 평이다. 또한 매일 새로운 반찬을 선보이고 있다. 백반의 경우 국·찌개가 매일 다르게 나와 집밥이 그리운 인근 거주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채워주고 있다. '행복담은 한그릇'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노인 등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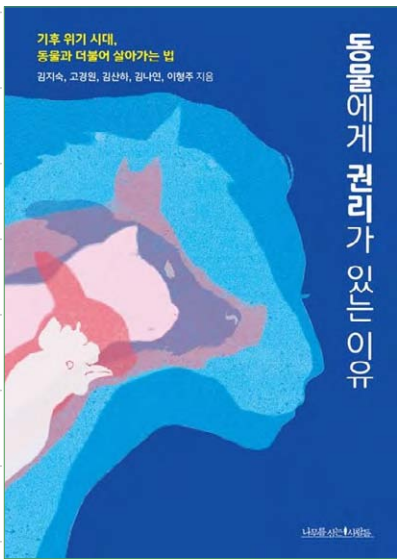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는 한편 어르신들께 장수사진 촬영을 해드리는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 인터뷰 마무리를 하며 권경미 이사장에게 어떤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는지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상호에서 느껴지듯 비록 한 그릇의 밥이지만 드시는 분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마음을 담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집밥 처럼 따스함과 정성을 담은 음식을, 지역사회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서의 소소한 책 꾸러미 ‘사소한 책’

4월 주제

지구를 위한 작은 행동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고
‘나’의 사소한 행동이 지구의 1도를 낮출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는 이유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사람도
행복하다.



기후위기인간

기후위기는 왠지 어렵고, 비건은 나의 길이
아니다 싶은 이에게 권하는 ‘유쾌하고’,
‘쉽고’, ‘변하고 싶어지는’ 에세이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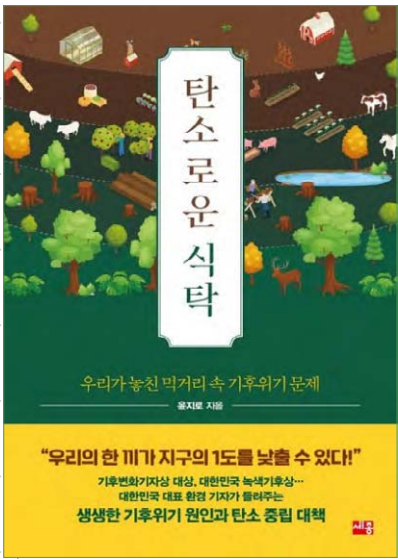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SF 소설가·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객재식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21세기 기후 교양



지구를 살리는 옷장

환경오염, 노동착취, 동물학대 없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
지속가능한 패션에 관한 고민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소개



탄소로운 식탁

탄소중립과 먹거리를 엮어 취재한
최초의 책! 식량 시스템의 악순환을 끊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 '사소한책'은 대덕구 도서관 사서들이 매월 주제를 선정해 관련도서를 추천합니다.



대덕구의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실천

대청호·양묘장 현장방문 통해 현황 파악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3월27일 임시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요 사업장인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등을 현장방문했다.

김홍태 의장을 비롯한 의원 8명 전원은 이날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내 발전소를 관람한 뒤 대청호 내수면을 시찰했다.

이들은 대덕구민과 함께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주요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실제 내수면 상태 등 상수원 환경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이들은 대덕구양묘장으로 이동해 운영 실태와 주요시설을 살피고 현대화 사업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방문 결과를 토대로 주민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실천하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268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5분발언·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박차’

3월22~30일 제268회 임시회 진행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지난 3월22일부터 30일까지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5분발언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약 233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유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이 담겼다”면서 “신속 집행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예산누수가 없게끔 꼼꼼히 살폈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의 재개를 요구하는 ‘대전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등을

현장방문해 상수원 환경실태 등을 점검했다.

또 구의회는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조대웅 의원)’과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규 의원)’ 등 10개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전석광·유승연 의원은 각각 ‘공공요금 인상 대비 장기적 지원 대책’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마련’을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김홍태 의장은 최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대형 화재를 언급하며 “극한 어려움에 처해 서로 돕는다는 뜻인 ‘상유이말(相有以沫)’이 절실한 시기”라면서 “조그만 도움이 상대방에게 커다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의회에서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고



박효서 부의장

신(NEW)트럴파크로 신탄진은 변신이 필요하다

어느 분야에서든 선구자는 존재한다. 우리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다. 조경 분야에도 아버지는 존재

한다. 미국의 조경 건축가 프레데릭 로 옴스테트이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미국의 센트럴파크가 있다. 그의 센트럴파크 설계 목표는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도시의 모든 계층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공공복지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은 주민들의 의견과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조성돼 주민들은 공원을 복지로써 제공받고 있다고 느끼기 어려우며, 이용률 또한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대덕구민 모두가 애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할 시점으로써 대덕구 도시공원 조성에 최적의 장소를 추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금강 현도교와 대청대교 사이 둔치이다. 과거에 이곳은 신탄진 주민들이

수영장으로 이용하는 등 여가생활을 즐겼던 곳이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장소다. 산책로는 조성돼 있으나 주변에 풀이 정리되지 않아 우범지대로 느껴진다는 민원과 신탄진 주변에 여가 시설이 부족하므로 운동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길 바란다는 건의다. 이 일대는 자연을 친밀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계획된 하천 보전지구로써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구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문화체육공원으로 변신되기를 희망한다. 공원 설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이뤄져 공원이 조성된다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남경마을이다. 40년간 신탄진 도심을 양분화했던 인입선로가 이설된다는 소식은 안전 문제와 소음 발생으로 피해가 컸던 남경마을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렇지만 인입선로 이설 후 남게 되는 폐철길은 우범화가 우려됨으로 남경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폐철길을 활용해

성공한 대표적인 지역이 있다. 바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경의선 숲길이다. 경의선 숲길은 서울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의선을 지하화하면서 생긴 폐철길을 공원으로 조성했다. 그 결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원이 되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공원인 센트럴파크와 연남동의 이름을 따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필자는 남경마을 폐철길이 연트럴파크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신(NEW)트럴파크’로 조성되길 바란다. 더 크게는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관광산업으로 개발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가족, 친구 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거나 휴식, 운동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공원의 가치와 효과를 재발견했다. 공원은 녹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휴식, 회복과 일상에서 탈출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린 공동의 공간이다. 조경학의 아버지 옴스테트의 공원 설계 철학인 ‘도시에서 자연으로 최단 시간 내 탈출’처럼 뻥뻥하게 건물이 들어선 도심 안에서의 공원은 오늘도 나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휴식의 공간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5분 자유발언

“공공요금 인상, 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선제적으로 대덕구 지원 신속 결정 뒤 집행” 촉구

전석광 의원이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에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

하겠다고 했지만, 인상 시기를 잠깐 미룬 것일 뿐 계획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제적으로 구 자체의 지원을 신속히 결정해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석광 의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촉구

“대기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필요”

유승연 의원이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갈수록 대기질이 나빠지면서 아이들 야외활동도 줄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의 성장기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낳아 키우기 더 좋은 대덕구로 거듭

나도록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해주길 바란다”면서 “부모에겐 쉼터로, 아이에겐 대기오염으로부터 건강을 키고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연 의원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살예방상담전화 **193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2-608-544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구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960시간 이내	연 960시간 초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무료(본인부담없음)	시간당 11,850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시간당 4,740원	

※ 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중복 불가
※ 심하지 않은 장애아 및 장애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돌봄서비스 내용 :
 - 장애아동의 신변처리 보조, 일상생활지원,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놀이활동, 외출지원 등
 - 서비스 제공은 월 최대 140시간 이내(연간 960시간까지 가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이용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 조사 및 선정 → 서비스 이용상담(대전장애인 부모회) → 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이용(대전장애인부모회)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동동의서,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기타 소득증명 자료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대전광역시 부모회(☎042-488-9457)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기간 2023. 4. 1. ~ 6. 30. (3개월)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시
 - 부동산과 예금, 급여 압류
 -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 관허사업의 허가, 인가, 면허의 취소 또는 제한

납부방법

구분	방법
이체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ARS 납부	· ARS 042-720-9000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 안내
인터넷 납부	· 위택스(지방세) https://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https://www.giro.or.kr
금융기관 방문	· 금융기관 ATM기 이용하여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 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문의 : 대덕구 세원관리과 (지방세 ☎042-608-6246)
(세외수입 ☎042-608-6247)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연결 법인인 경우 5.31.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세 율 :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누진세율(1 ~ 2.5%) 적용
 - 신고납부 : 전자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부서
 - 전자신고 : 위택스 신고납부(www.wetax.go.kr)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차감명세서 (외납법인용) 등
 - 유의사항 :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미달세액의 10%, 40%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당 해당세액의 0.022%
- ※ 법인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 해야 함

문의 : 대덕구 세원관리과(042-608-665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안내

- 기간 23.11월까지 / 장마철·혹서기 일시 중단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3개월 이상 민원 신고된 길고양이
- 절차 신고(구) → 포획(구조단) → 수술(동물 병원) → 방사(구조단)

문의 :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동물정책팀(☎042-608-6953)

상반기 광견병 무료 접종 안내

- 기간 : 23. 4. 25.(화) ~ 4. 27.(목)
- 장소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날 짜	장 소	시 간
4. 25 (화)	법2동	13:00 ~ 14:00
	법1동	13:30 ~ 15:00
	회덕동	15:30 ~ 16:00
	대화동	16:30 ~ 17:00
4. 26 (수)	오정동	13:00 ~ 13:30
	중리동	14:00 ~ 14:30
	비래동	15:00 ~ 15:30
	송촌동	16:00 ~ 16:30
4. 27 (목)	목상동	13:00 ~ 13:30
	덕암동	14:00 ~ 14:30
	석봉동	15:00 ~ 15:30
	신탄진동	16:00 ~ 16:30

- 대 상 : 3개월 이상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 고양이
 - 신청방법 :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동물정책팀(☎042-608-6952~6954)



신탄진동	대청지역아동센터 / 신탄진지역아동센터
오정동	만두레지역아동센터 / 새순지역아동센터 / 오정지역아동센터
중리동	극동지역아동센터 / 서광지역아동센터 / 한밭지역아동센터
회덕동	나눔지역아동센터 / 와동지역아동센터 / 장동지역아동센터 / 회덕지역아동센터

대덕문화축제

FESTIVAL 2023

2023. 4. 8. SAT - 4. 9. SUN

2023 대청호 대덕뮤직 페스티벌

대 청 공 원

4. 8. SAT
15:00~

다이나믹듀오
로맨틱펀치
HYNN(박혜원)
루시
전건호

4. 9. SUN
15:00~

10CM
펀치
실리카겔
경서예지
라쿠나

부대행사

물빛버스킹
어린이페스티벌
체험&물빛마켓
푸드트럭

돛자리 필수, 셔틀버스운행 (무료)

주최 · 주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원

후원 대전광역시 HANKOOK KEB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대덕구협의회 대전청과(주) 롯데칠성음료 Angelinus Coffee 대청유리공업(주) (주)한국모터트레이딩 백스컴퍼니